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2월 3일(금)

(음력 1월 13일)

Пятница

3 февраля 2023г.

№ 4 (1202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러시아 통합당은 '러시아의 우수 겨울 마당'이란 콩쿠르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콩쿠르는 3가지 부문: 단지 내에서 개최된 우수 겨울 행사, 우수 겨울 마당 제반 시설, 우수 겨울 마당 장식이다. 이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에세이와 사진은 2월 2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3월 15일에 발표 할 계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한 주택 단지 내.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올해 말까지 지역 및 구역 도로 38km 이상 현대화

'안전한 고품질의 도로'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지역과 연방 예산이 투입돼 이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목적으로 94억 루블리가 배정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주내 도로를 건설하고 수리하라는 과제를 지시했다. 이는 사할린 주민들이 안전하고, 더욱 편안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작업 시행 시 우리는 새로운 공법과 도로포장에 현대적 하중과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교통사고량이 16%까지 감소되었다."고 도로교통사업부의 제1차관 리 에두아르드가 전했다.

주요 도로 건설작업은 아니와, 네웬스크, 흠스크, 토마리 지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 경계에서 진행된다. 연방 예산 덕에 이투루프섬의 쿠릴스크-레이도워 도로 구간과 쿠나쉬르섬 유즈노쿠릴스크 시지구의 아스팔트 구역 개건에 착수한다.

대형 기획들 중에 네웬스크-토마리-샤흐초르스크 공항 구간 차량 도로의 주요 공사가 계속된다. 이 구간들은 사할린 중심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된 경제개발 구역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들이 공사되어 기쁘다. 전에는 비에 침식되는 시멘트 포장도로여서 그 도로로 이동하기도 불가능했다. 우리는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해주길 주 정부에 찾아가 여러 번 요청을 했었다. 지금은 다르다. 도로는 최상급이며 매해 새로

운 길이의 포장도로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인다."고 노워시비르스크에 마을 주민인 안드레이 그루쉬코브가 말했다.

2023년에는 <안전한 고품질 도로>국가계획의 목적으로 연방 예산에서 6억1900만 루블리가 배정됐고, 지역 예산에서 15억 루블리가 지원되어 차량 도로18.9km를 현대화할 계획이며, 그중 14.6km가 지역의 주요 도로이고, 4.3km는 지방의 주요 도로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구역 도로망이다.

토마리 지역의 파루스나야 강과 네웬스크-토마리-펜젠스키 부근 샤흐초르스크 공항의 차량 도로에 개울을 통과하는 새로운 다리 건설이 시작된다. 이외에도 오펜키 마을 부근 비스트라야 강, 토마리 지역의 일린카 강을 건너는 다리 시설에 주요 공사가 이뤄지며, 네웬스크-로파티노 마을 부근 쉐부니노 차량 도로의 아무르스카야 강을 건너는 다리 공사가 이뤄진다. 또한 흠스크 아블로초노에 마을의 켈레브나야 강을 건너는 다리의 개건이 계속된다. 특히 주내 600km 이상 지방자치단체 차량 도로들의 상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명목으로 주 예산에서 17억 루블리를 책정하고 있다.

참고: 사할린주 총 차량 이용 도로의 거리는 4833.74km이며 그중 917.64km는 연방 주요 도로이고, 927.8km는 주 소유의 도로이며, 2988.3km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이다. (주 정부 자료에서)

페르바야 파디 마을에 새로운 응급진료소

코르사코브 지역에 새로운 의료시설이 개설된다.

페르바야 파디 마을의 주민들은 현재 새로운 의료시설의 편안한 여건 속에 의료 혜택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모든 현대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응급진료소는 '보건' 국가보건기획의 초기 진료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설됐다.

응급진료소에서 치료와 검진 및 질병예방 지원이 제공되며 현지 주민들이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및 진료예약도 받고 있다.

코르사코브 지역 중앙병원의 콘스탄틴 고르퐁켈 병원장은 "응급 및 비상 지원이 필요할 시 이를 위한 응급처방과 약품이 구비돼 있으며 간호사가 필요 시 지역 병원과 연계시켜 일정표에 따라 전문의와 긴밀한 협력 가운데 왕진이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올해 '보건' 국가보건기획의 초기 진료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벽촌에 의료기관 건설은 계속된다. 응급진료소가 돌린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마카로브 지역에도 건설될 전망이다.

단신

올해 사할린에 수질연구에 따른 자체 연구소 개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주 정부 실무회의에서 이를 지시한 가운데 사할린 국립대를 거점으로 연구소가 개설된다. 사할린 국립대학 연구소와 장비를 기반으로 '로스워도카날(러시아 수도국)'의 전문가들이 시험 활동을 진행한다.

"대학에는 일부 필요한 장비들이 있으며 남은 장비들은 조만간 구입할 예정이다. 4월에 첫 단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때쯤 연구소 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인가를 받고, 정해진 수질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주 정부 부총재 바체슬라브 알렌코브가 말했다. 연구소에서는 천연 지표면 및 지하의 물, 식수, 폐수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물의 맛과 냄새, 산성 농도, 미세물질, 탁도, 생화학적 요소, 질산 농도 등을 검사한다. 향후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토양과 지층밑의 지반을 연구하며, 식품과 동물 먹이를 연구조사할 수 있다. 연구소는 올해 말까지 최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할린의 외딴 마을의 주민들에게 고속 인터넷 및 이동통신 제공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의 트람바우스 마을에 통신탑이 설치돼 고속 인터넷이 이용되고 있다. 이 통신탑은 '디지털 경제'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이 마을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지난해 사할린 지역에 7개의 통신탑 설치되어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흠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오히 지역에서 가동되면서 1200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휴대전화 통신과 인터넷이 보급됐다.

2월1일 사할린주에서 2023년 도시 밤 아동 캠프 등록 시작

'차이카', '레노에 오제로', '유빌레이니', '위스토크' 휴양소가 사할린 학생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예비 자료에 따르면 오는 건강캠페인에 58,000명 넘게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할린주 정부 주재 부서간위원회 회의에 전문 부서와 감독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 휴양 조직 문제가 논의됐다. "사할린과 쿠릴에서 자연캠프 외에도 300개 이상의 캠프장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의 과제는 학생들에게 편안한 여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 정부가 전과 같이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지출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학부모 휴양 경비의 85%는 지역 예산의 기금으로 보상하며,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무료로 휴식을 하게 된다."고 사할린주 정부 블라디미르 유슈크 부총재가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주 한인협회 소식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사업 계속

지난 1월 31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 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주 한인협회 산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이 올해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실무그룹은 전에 오진하 고문이 담당했는데 오진하 씨가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회의에서 이 실무 그룹 담당자로 우리말방송 김춘자 국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전달 방법과 청원서 내용 등을 심의하고,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다.

박순옥 주 한인협회 부회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단체에서 사할린한인 문제로 온라인 회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보고했고, 회의에서 이에 참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법개정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대한 사할린한인 5000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윤석렬

한국 행정안전부, 제8차 사할린한인 유해 봉환 실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2023년 제8차 사할린 한인 유해 봉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해 봉환의 규모는 10위 이내로 9월 중 봉환이 추진된다면 화장의 절차를 거쳐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사이트에는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희생되신 분의 유가족 중 유해 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2023년 3월 10일까지'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고가 올라 있다. 신청서 접수 담당부서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이다.

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3월 10일까지 '사할린 한인 유해 봉환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유해 봉환 대상 선정 기준은

-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간의 희생자로서 현지에서 사망한 자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된 자)이며
- 2. 사할린에 묘지가 있으며, 희생자의 묘지가 확인되는 경우
- 3. 국내에 유가족이 있으며, 동 유가족이 봉환에 동의하는 경우(사할린에도 거주하는 유가족이 있는 경우, 전원 봉환에 동의하여야 함)이다.

강제 동원 희생자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중 유해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유해 봉환 대상의 선정 순위는 1순위

로 대상자의 유가족 등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영주귀국자 제외) 2순위로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배우자의 묘지는 없고 대상자의 묘지만 있는 경우, 3순위로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대상자와 배우자의 묘지가 같이 있는 경우(이 경우, 배우자의 유해도 봉환 가능하나 유해 봉환에 드는 비용은 유가족이 부담)로 정하고, 유해 봉환 신청 가능.

유가족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강제동원조사법 제3조)로 공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한인 유해 85위를 봉환했다.

(본사 기자)

한 해 동안 러시아 인구 55만 명 이상 감소

2월 1일 모스크바 타스 통신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러시아에는 1억 4,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통계청이 수요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인구가 55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2023년 1월 1일 현재, 146,424,729명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도시에는 109,634,815명, 농촌에는 36,789,914명이 거주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도시에 109,808,572명, 농촌에 36,893,823명으로 146,702,395명이 상시 거주자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1일 기준 러시아 상시 거주 인구는 146,980,061명이다.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인구는 555,332명 감소했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연방관구에는 4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모스크바 지역에는 1천300만 명 이상, 모스크바주에는 85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북서부 연방관구에는 1,360만 명 이상이 상시 거주 중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거의 56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레닌그라드주에는 2백만 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또한 남부 연방관구에는 1,66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으며, 북부 카프카스 연방관구에 1,000만 명 이상, 프리볼주에 관구에 2,860만 명 이상, 우랄 관구에 1,200만 명 이상, 시베리아 관구에는 1,660만 명 이상, 극동 연방관구에 거의 8백만 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러시아 내 도시에서 1백만 명이 사는 도시들은 16개이다. 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월고그라드, 예카테린부르크, 카잔, 모스크바, 니쥬노노보고로드, 노위시비르스크, 옴스크, 로스토프나도누, 사마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우파, 첼랴빈스크, 2022년부터는 크라스노다르, 크라스노야르스크, 페르미, 워로네즈가 포함됐다.

러시아 통계청은 2021년 러시아에서 실시된 전 러시아 인구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인구조사 자료를 2022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한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주주, 헤르손주 등 러시아 연방의 4개 신설 지역의 인구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 러시아 인구조사 예비 자료에 따르면 약 1억4,700만 명이 러시아에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러시아 통계청에서는 통계 자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이후에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0월 기준으로는 1억 4천 5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러시아에 거주하였다.

이 모 저 모

올해 사할린의 '자영업자 클럽', 200명 이상 교육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자영업자 클럽'이 공식 개설된 가운데 사업의 기초, 지원책 찾기, 판매 촉진 지원을 무료로 교육했다.

'마야크'아트센터에는 자영업자들과 개인 사업가들을 비롯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였다. 교육은 2달간 텔레그램을 통한 화상 및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 단체는 사업가를 지원하는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800명까지 인원이 늘었다.

이번 시즌의 혁신적인 점은 고객을 대상으로 관심을 끌 제품 광고를 위해 참가자들의 제품을 촬영하는 사진촬영 단체의 지원이다.

현재 및 잠재적 사업가들에게 자영업 소개의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올해는 200명 이상이 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인접한 지역들인 아니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흠스크, 포로나이스크가 이 기획에 연합하게 되었다. 코르사코브와 흠스크, 포로나이스크에서는 참가자들의 제품과 판매 서비스에 따른 박람회를 연다. 이 기획은 3월25일 자영업자들의 총결산 회의로 종결짓게 된다.

«Клуб самозанятых» на Сахалине обучит в этом году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о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Клуба самозанятых», где бесплатно обучают основа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одбирают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могают в продвижении и продажах.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собрались самозанятые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а также люди, которые только планируют начать свое дело. Занятия рассчитаны на два месяца 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как живую, так и в Telegram-чате, сообщество которого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стартовала эта программ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ыросло до 800 человек.

Новшеством этого сезона является помощь в орга-

низации фотосессии товаров участников, чтобы представить их в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м для клиентов виде. Нынешних 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бизнесменов будут обучать также искусству самопрезентации.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ожидают, что обучение пройдет 200 человек, тем более что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ближайшие к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районы: Анивский, Долин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Холмский и Поронайский. В Корсакове, Холмске и Поронайске проведут ярмарки по продаже услуг и товаров участников. Завершится проект 25 марта итоговым форумом самозанятых.

사할린주 자연적 인구감소 낮아지다

지난해 1월-11월간 사할린주의 자연적 인구감소가 기록되었다. 주민신분등록소에는 4,588명이 출생하고, 5,920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사할린주 통계청이 전했다.

자연적 인구감소는 1,332명으로 2021년 유사시기에는 1,896명이 감소했다.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기록된 지역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세웨로쿠릴스크 시지구, 쿠릴스크 시지구, 유즈노쿠릴스크 시지구 등 4개 지역이다.

주내 혼인신고는 4,234건, 이혼은 2,280건으로 기록된 반면 2021년 유사시기에는 혼인 3,226건, 이혼 2,220건으로 기록됐다.

사할린주 러시아 내무국 이주민 문제 관리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11월 사이 사할린과 쿠릴 지역으로 16,473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47.8%가 상시 거주자였고, 사할린을 떠난 사람은 20,300명으로 그중 80.2%가 이전 거주지 등록을 취소했으며, 사할린 주내에서 주거지를 이동한 사람은 5,193명이고, 이주민 감소는 3,827명이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низился показатель естественной убыли населения

За январь-ноябр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В органах ЗАГС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4588 родившихся и 5920 умерших,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1332 человека,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21 года убыль составляла 1896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четыр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еверо-Ку-

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Ку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4234 брака и 2280 разводов против 3226 браков и 2220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21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ноябрь 2022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о 16473 человека, из которых 47,8%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20300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80,2% —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5193 человека.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3827 человек.

2월9일부터 요리축제 <나바즈니 페스트> 개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사할린에서 <나바즈니 페스트> 요리축제가 열린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16개 카페와 요식업체들이 행사에 참가한다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전했다.

요식업체들은 사할린주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꼬류쉬카'와 '나와가' 생선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요리축제를 위해 특별히 요식업체들의 요리사들이 조리법을 개발한 가운데 올해는 시민 판정단이 3개의 요리로 구성된 세트들을 맞볼 수 있다.

올해 요리축제의 새로운 것은 배달 요리로 특화된 업체가 참가하여 흥미로운 음식을 집에서 맛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축제는 사할린 관광안내센터와 사할린주 관광부, 사할린 '사쿠라' 음식 및 요식업협회가 주최한다.

Гастрофестиваль «НаВажный fest»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с 9 по 25 февраля

С 9 по 25 феврал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НаВажный fest».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ут 16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улинарные заведения представят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азличные блюда из наваги и корюшки. Рецепты блюд шеф-повара заведений разработали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гастрофестиваля. В этом году на суд зрителя представлены сеты из трех блюд.

(8면에 계속)

[KBS특파원 리포트]

조선인들은 왜 사할린에서 지명수배되었나

'경찰공보'라는 제목의 문서. 그 아래에는 일본어로 '가라후토청 경찰부(樺太庁警察部)'라고 적혀 있습니다. 쇼와 16년 12월 15일 발행. 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의 기록입니다.

가라후토(樺太) 또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령이었던 북위 50도선 이남 사할린 지역, 즉 남사할린을 뜻하는 일본어 표현입니다.

문서 왼쪽 페이지에는 '단체이주 조선노동자 도주수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체이주 조선노동자란 집단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즉 '강제동원 조선인'을 말합니다.

맨 윗줄에는 '도주 년월 일'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표에 등장하는 네 명 중 첫 번째(맨 오른쪽) 조선인은 1941년 11월 8일에 돌아났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를 뒤 돌아났습니다.

'모집'이라는 말에 속아 일본 땅으로 건너 온 조선인들이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고 달아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차를 두고 함께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도쿄광산감독국이 1943년에 작성한 '이입 수 및 감원 수'에는 3년 동안 전체 동원자 1005명 중 148명이 달아난 걸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들이 강제노동을 했던 '가동(稼働)' 장소는 니가타현이었습니다. 처음 동원이 실시된 '본적'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과 영오면으로 모두 경남 출신이었습니다.

지명수배 문서에는 직업과 이름, 나이도 나와 있습니다. 동원 현장에서는 '토공(土工)'일을 했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명의 이름 모두 일본어로도, 한글로도 어색하지만 본적을 통해 조선인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상·특징·착의'에는 열굴 생김새, 옷차림 등 꽤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들의 수배 주체는 모두 니가타현이었습니다.

강제동원 현장인 니가타현에서 달아난 조선인들이 한참 멀리 떨어진 지금의 러시아 영토 사할린에서까지 수배가 됐던 겁니다.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혹독한 노동 현장에서 달아난 조선인들. 어떤 식으로든 일본 당국에 쫓겼을 것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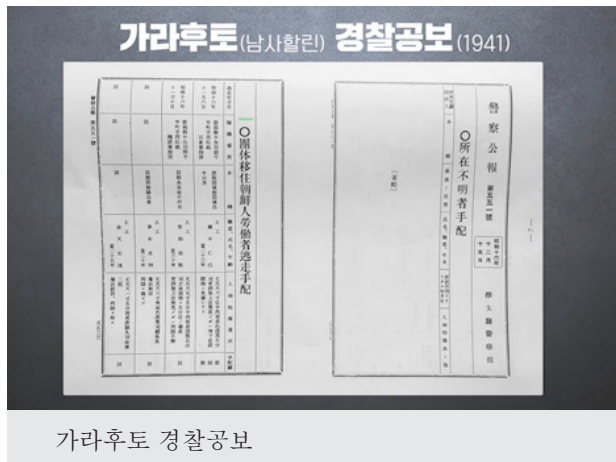
그런데 강제동원됐다 달아난 조선인들의 지명수배 사실을 왜 굳이 사할린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까요?

일본 내에선 이 같은 문서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동원 연구자들은 일본이 패전한 이후 모두 파괴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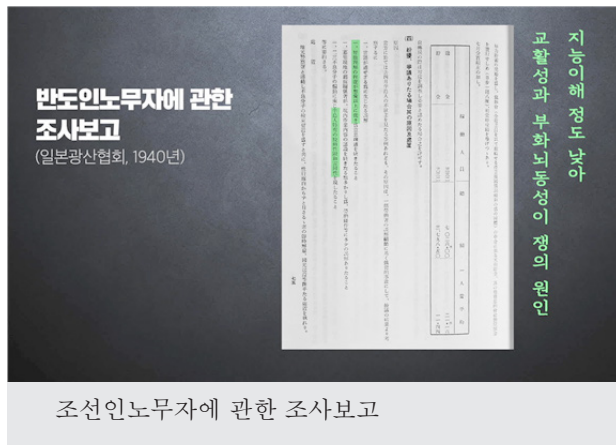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가라후토 경찰공보'는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됐을까요? 일본 패전 후 사할린은 소련의 영토가 됐고, 소련은 이 같은 문서를 없앨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한 단체가 일제가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를 지명수배했다는 증거 문서를 사할린에서 찾아낸 겁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현장에서 달아나기 전에 실제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문서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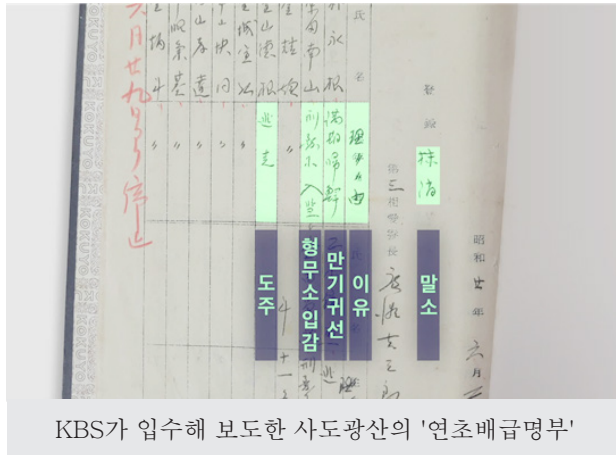
당시 사도광산의 노무과 직원이었던 스키모토 소지씨가 1974년 일본의 역사학자에게 보낸 28장의 편지입니다. 스키모토의 편지에서 조선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졌



가라후토 경찰공보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보고



KBS가 입수해 보도한 사도광산의 '연초배급명부'

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노동자 감시 역할을 하며 조선인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스키모토가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다는 겁니다. '모집'이란 형식을 빌려 동원된 조선인들에게 '계약기간'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스키모토는 조선인들이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회상합니다.

'강제동원이 아닌 모집이었다', '자유지에 따른 계약이었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

장은 상반된 내용입니다.

'일을 잘 못하는 자들은 탄압 방침에 따라 근로과로 데려가 때렸는데 차마 볼 수 없는 폭력이었다.'

'탄압에 의한 노동과 식사에 대한 불만으로 10여 명이 집단으로 도주' '강제노동을 당하고 1년 모집이 몇 년으로 연기되면서 반은 자포자기 상태가 된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6면에 계속)

재외동포재단, 제12기 OKFriends 봉사단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이하 재단)은 해외 한인 차세대와 교류하면서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할 '2023년도 OKFriends(대학생 봉사단)'을 90여 명 규모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봉사단은 재단이 시행하는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등 다양한 초청사업의 진행요원으로 참여하여 차세대 재외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단으로서 재외동포사회에 파견되어 현지 동포사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재단은 오는 2월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3월 11일 면접을 진행해 3월 15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봉사단 발대식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현재 국내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내국인 학생, 재외동포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서는 2월 26일까지 이메일(okfriends@okf.or.kr)로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코리아넷 홈 → 공지사항 → 361번 '제12기 OKFriends 봉사단 모집안내'

활동 기간은 3월~12월까지 약 10개월간이며, 활동을 마친 봉사단원에게는 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김성곤 재단 이사장은 "OKFriends 봉사단원들이 봉사활동과 공공외교활동 과정에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동포사회와 모국, 거주국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인재양성의 의지와 비전을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그렇게, 그저 그렇게 / 이연주

신문을 찢어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다가
 몇 군데 전화를 걸다가
 건어포를 우물우물 깨물다가
 생맥주 한 조기를 킁킁 마시다가
 개 같은 날씨, 당한 거야, 그래
 사는 게 음모라는 걸 몰랐으니
 중얼거리다가
 문득 건강을 염려하기도
 망가지면 양로원에 갈 수 없는 나이니까
 몇낱 동전을 찢그럭거리다가
 찢어진 신문 쪼가리의 낡은 기사들을
 건성으로 읽어 넘기다가
 도난당한 신발처럼 버스를 타고
 자동차들은 왜 저렇게 수선스러운지
 무책임한 탄식의 거리에서
 방공호 같은
 집에 돌아와 TV를 켜고 짐작처럼
 수신 몸 던진다는 말뿐이지
 콧등을 문지르면 시킵케
 저놈의, 지랄 같은 하늘, 검댕가루.

"간호사였다고, 그리 살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시를, 그것도 어두운 시들을 몇 편 지었다고. 그러다 스스로 생을 마무리했다고, 그리 살았다고 들었어요. 이연주 시인. 삼십년을 훌쩍 넘긴 시인의 오래된 일기장을 몰래 훑어 읽는 기분입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켜고 짐작처럼 수신 몸 던진다는 말뿐이지'라는 표현이 참 아프네요. 밝다고 해서 모두 나쁜 시가 아니듯 어둡다고 모두 좋은 시는 아니겠지요. 누군가 이 시가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분은 이런저런 분위기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건데. 지난 과거를 통해 익히 경험했거나 지금 현재 이토록 피로하고 무기력한 일상을 버티고 계신 건 아닌지. 그렇다고 제가 어떤 위안을 드릴 수 없으니 송구스럽네요. 외로움과 냉소, 무엇보다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의 단절이러니. 매혹적인 이 시를 미학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부디 힘내시라고 읊깁니다. 겨울이 끝나갑니다. 결국 얼어붙은 강 역시 긴 겨울이 지나면 어느새 녹아 저 멀리 망망대해로 흘러갈 텐데요. 버티는 겁니다. 버티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도난당한 신발처럼' 어수선한 출퇴근 길에 몸을 싣는 일상이겠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낮이라도 길어지잖아요. 어느새 어디선가 산들바람이 불 테고. 따사로운 별이 부지런히 뛰어오는 소리가 제 귓가에는 벌써 들려옵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아니와의 37가구 노후주택으로부터 편안한 주택으로 입주

'아니와 해변' 주택단지에 15가구와 45가구가 들어설 주택 2개동이 준공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아니와, 페트로파블롭스코예 마을, 비스코예 마을, 아곤키 마을의 노후주택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입주민의 아파트는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료로 공급됐다. 사할린주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 국내 선두 지역들 중 하나이다. 아니와의 스웨틀라나 시웨츠 시장에 따르면 한 달 전 지역 중심에 트란스포르트나야 거리에 2개의 신축 주택을 포함해 100가구가 입주하도록 했으며, 조만간 페트로파블롭스코예에는 각 층 2가구씩 3동과 미즐롭스코예에 각 층 2가구씩 5동의 주택 건설이 시작된다고 했다.

"올해 트로이츠코예 마을에 22가구가 들어설 복합주택을 준공할 예정이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이주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는 편안한 주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스웨틀라나 시웨츠가 덧붙였다.

지난해 사할린주는 연방예산에서 100억 루블리 이상의 자금을 받았는데 이는 러시아 전 지역에서 중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에 따른 지원금액으로서는 상당한 액수다.

주택 문제는 1차와 2차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노후주택에 대한 구매 금액은 상환되는 다양한 체계로 해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주 주택 조건의 새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사할린과 쿠릴 주민 8천여 명의 생활이 개선됐다. 올해는 5천여 명의 주민들이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시킬 계획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Флаг вам в руки!

В конце ушедшего года 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среде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изошло знаменательное событие. Эпицентр Общества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 Клубов (ОКБК) впервые переместил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и в 2023 году его штаб-квартира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в Сеуле.

У 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ергея Ина есть время, чтобы вдохнуть новые идеи в ОКБК.

Сергей, для чего, на ваш взгляд, необходимо ОКБК?

Моё личное мнение. ОКБК нужно для объединени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То, что создали наши родители (корейские ассоциации) – это был первый шаг к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йцев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Они сделали много, но не всё. А ОКБК, я считаю, служит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 бизнес основе на равных условиях, на равных правах уже в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е это было объединение молод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ы могли общаться на этой площадке и, главное, прогрессировать в будущем. Любое начинание должно эволюционно прогрессировать.

Назовите свои главные задачи?

Хочу, чтобы ОКБК было глоб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и, чтобы нас,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уважали, признавали и умели ценить наши способ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для этого нужна авторитетная площадка. Она у нас уже существует, но всем нужно работать в том русле, чтобы создавалась площадка с прогрессирующими взглядами с выходом н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арену.

Можно ли поставленные перед сообществом цели назвать глобальными?

ОКБК существует уже седьмой год — был заложен фундамент организации внутри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теперь, являясь седьмым президентом ОКБК, я хочу поставить перед нашим сообществом глобальную цель — чтобы наша организация вышла за пределы стран СНГ на дальнейшее зарубежье — Северную Америку, возможно, Японию и Европу. Для этого у нас есть все предпосылки и потенциал.

Я думаю, что те цели, которые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до меня, реализовались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же существует двенадцать клубов шести государств. Убеден, что это очень масштабный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не удалось осуществить нашим отцам и дедам, когда они создавали Ассоциацию. И в моем понимании пора выходить на другую ступень — в сторону масштабирования и глобализации.

На днях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в этом году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совет, где вы озвучили стратегию и вектор деятельности ОКБК на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Почему три?

Потому что, считаю, что на реализацию текущих целей ОКБК потребуются ми-

нимум три года. Во-первых, выйти на глобальную аванс-сцену. Во-вторых, внутри Кореи в этом году будут образовываться Министерств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нам нужно, опережая некоторые измен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законами 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ах идти вперед и связываться с определенными фондами. В третьих, в последующем сделать общественную юридическую организацию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 Сеул.

Уже есть какие-то конкретные планы до конца 2023 года?

Огласил их на январском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м совете. Это знакомство с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м Канады и США (Торонто, Ванкувер, Монреаль, Нью-Йорк, Бостон, Лос-Анджелес). В планах, чтобы эти сообщества вошли на площадку ОКБК. Также, к концу зимы планирую встретиться с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м Японии, г. Осака. Да, они не являются русскоязычными корейцами, речь не идет о принятии их в ОКБК, но это было бы большим шагом вперед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бизнес-планов. Планируем совместно с YBLN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так как, в 2022 году в г. Бишкек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ши члены ОКБК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ити форуме,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Японии, г. Йокогама. Запланирован форум ОКБК,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Чеджудо в Корею. Наши члены ОКБК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на Хансан-фестивале,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за предел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лифорнии, г. Анахайм. А также, наши внутренние корсосты.

При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ОКБК, между Киргизстаном, Казахстаном, Узбекистаном и Россией уже идут бизнес-проекты —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логистики, например. А если мы откроем двери в дальнейшее зарубежье, думаю, что будут боль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плане бизнеса, это расширит границы, будет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возможностей, перспектива развития новых бизнес-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писание меморандума с YBLN тоже немаловажный фактор, потому что члены этого клуба тоже не простые бизнесмены — это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который имеет свое видение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с СНГ и Россией.

На примере конкретных кейсов, могли бы вы привести примеры компаний внутри сообщества, добившихся успеха или нашедших решения благодаря ОКБК?

Назову два ярких примера: логис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Вячеслава Ким из клуба KORYOIN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т свои проекты на площадке ОКБК и даже за её пределами. Также, у нас есть компании, и члены клуба KBN в частности,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производством косметики в Корею и экспортируют в страны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и членам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Что было в повестке первого онлайн заседания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ОКБК?



Сергей Ин, президент ОКБК-2023

Заседание корсосты ОКБК вел президент клуба KBN Алексей Ли.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были следующие: ДНК клуба и ДНК корсосты, стратегия и вектор направления ОКБК на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мараторий для клубов дальнего зарубежья (мораторий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новые клубы), план на 2023 год, появляется новое структурн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 пресс-служба ОКБК,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оторой будет Лана Тянь, а также, обсудили техн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по кассе ОКБК. По всем пяти вопросам члены корсосты единогласно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Гео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коснулась организации?

Безусловно! Например, теперь мы не можем часто и напрямую вылетать в Россию, приходится выбирать сложные маршруты. Кроме того, в некоторых клубах происходит стагнация, они не знают куда двигаться, нет четкого понимания, в каком русле нужно идти. А раз нет общего знаменателя, эт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сам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этому, клубам необходимо в ускоренном темпе добиться стабилизации и прогресса. Если все клубы будут сильными, тогда и площадка ОКБК будет сильной.

А возможны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мнения расходятся?

Тогда откладываем вопрос, чтобы переосмыслить и вернуться к нему позже. Если что-то кардинально меняется, вопрос выносится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О чем удалось договориться в декабрьских встречах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им Сон Гоном и президентом Всемирного фонда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за мир и процветание Ким Док Рёном?

Мы подняли вопрос о том, что ОКБК это достаточно си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звучили, что с высоким процентом вероятности до конца года к нам примкнут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Канады и США. Это было

воспринято с восторгом, потому что президентам хочется общаться с силь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не распыляясь на маленькие сообщества. Мы 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хотим поднять престиж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 также, пригласили председателей двух фондов на форум ОКБК,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сентябре. Со всемирным фондом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за мир и процвета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писание меморандума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 ближайшие 3-5 лет.

Надеюсь, что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это перерастет в экономическую площадку, для этого нам нужно име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фондами, общее видение, об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казать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зовите ведущие тренды в развитии бизнеса между РК и странами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которые наметились в 2022 году и будут ведущими в 2023?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ратегически ставит большую ставку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 частности на Среднюю Азию. Учитывая тот интерес, который РК проявляет к русскоязычным корейцам, наша площадка ОКБК должна бы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м мостом.

В условиях санкций, какие действия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выстраив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постсоветски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и роль в этом ОКБК?

Трудности были и всегда будут, без трудностей не преодолешь ничего. Поэтому, я надеюсь, что даже в условиях санкций ОКБК станет экономическим мостом для всего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все члены ОКБК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единым фронтом. Этап нетворкинга, когда укреплялись связи, отношения и доверие уже прошел и пора перейти к более весомым, масштабным проектам. Если мы сейчас упустим этот шанс, следующее поколение не оценит нас. Раз время пришло, и ситуация складывает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успех нам благоприятствует, мы должны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о и работать. Только при таком условии создадим мощный симбиоз и площадка ОКБК станет авторите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в мировом масштабе.

Что придает вам уверенность?

Я мотивирован на то, чтобы создать нашему будущему поколению условия, при которых ему было бы проще и лучше, чем нашему поколению. Мотивирую себя тем, что должен свой опыт, знания, потенциал, а также, потенциал и возможности KBN и ОКБК направить на то, чтобы создать более комфортную жизнь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ам, оставить определенный след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Думаю, что эта внутренняя мотивация и дает мне энергию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Понимаю, на что способны мы, на что способен KBN и, на что способно ОКБК.

Лана Тянь, пресс-служба ОКБК

Найден способ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пожилых

Сеул, 30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южнокорейцев работают не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менее 15 часов в неделю, и большинству из них сейчас за 60 лет.

По данны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и, число работников, занятых не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менее 15 часов в неделю, увеличилось на 65 000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 рекордных 1,57 миллиона. Их число растет с 2013 года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ни составляют 5,6 процента всех занятых.

Люди старше 60 лет в этой категории работников составляют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или 50,9 процента,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лица моложе 30 лет (21,9 процента), в возрасте 50 лет (11,7 процента), 40 лет (9,2 процен-

та) и 30 лет (6,3 процента).

Почти весь прирост пришелся на пожилых работников, занятых не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 62 000 человек, в то время как число лиц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29 лет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7 000. Среди други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их число сократилось на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Рост непол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сред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во многом обусловлен те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здает для них искусствен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оплачиваемые за счет денег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Пак Юн Су из же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хмионг сказала: «Работодатели теперь предпочитают нанимать работников на не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а студенты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 другие также предпочитают 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ошел в семерку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в мире

Сеул, 29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та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языков для изучения в мире благодаря глобальному увлечению К-поп и корейскими телешоу и фильмами, сообщает CNN.

«В 2022 год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был седьмым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языком в учебном приложении Duolingo»,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CNN под заголовком «Корея принесла миру К-поп и К-драмы.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ожет быть следующим».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возглавил список с примерно 500 миллионами пользователей Duolingo, за ним следуют испанский,

французский, немецкий, японский и итальянский.

Хотя, возможно, более полезный как второй п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сти язык в мире, китайский уступает корейскому, поскольку восприятие Китая Западом ухудшается, предположил CNN.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собенно популярен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где он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изучаемым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ом, особенно в Брунее и на Филиппинах, и «недалеко от первого места» в Индонезии, Пакистане и Таиланде.

CNN отмечает, чт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являе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ложным» для изучения.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ул будет добиваться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В этом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приступит к активной реализации «Смелой инициативы», то есть, концепци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семерной помощи в развитии в обмен на отказ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готовить «инициативу нов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будущего».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об основных задачах на 2023 год, направленном 27 января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ю.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Сеула определено «выстраивание правильных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этой целью Сеул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установить как «прямые, так и косвенные» контакты с Пхеньяном, в том числе, посредством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будут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работу по улучшению ситуации с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на Севере. Помимо этого, будет изменён подход к поддержке беженцев. Акцент будет делаться на таких аспектах как образование, более глубокая интеграция в общество, оказание поддержки в сложных ситуациях.

Полная отмена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станет возможна в мае

Полная отмена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станет возможна не раньше мая этого года, когда будет отменено обязательное ношение масок в домах престарел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аптеках и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30 января на брифинге председатель эксперт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инфекционным заболеваниям Чон Ги Сок. Он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трёх месяцев будет достаточ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зд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олной отмены требования ношения масок. Ранее карантинные власти заявляли, что полная отмена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станет возможн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уровень опасности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будет снижен с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серьёзный» до второго «бдительность» или третьего «осторожность» по четырёхуровневой шкале. Чон Ги Сок призвал продолжать носить маски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людей.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б отмене семидневного карантина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он отметил, что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ь пока преждевременно.

Пхеньян отверг обвинения в поставках оружия России

Официальный Пхеньян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проверг обвинения Вашингтона в поставках оружия России. «Попытка запятнать имидж КНДР путём фабрикации несуществующей вещи - это серьёзная провокация, которую нельзя допустить и которая не может не вызвать ответной реакци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Квон Чжон Гын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9 января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США должны помнить, что они столкнутся с нежелатель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если будут упорствовать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беспочвенных слухов о КНДР»,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Какой «нежела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имеется в виду, не уточняется. 20 января координатор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коммуникациям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ША Джон Кирби заявил о то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поставлять боеприпасы России, назвав это нарушением резолю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 качеств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он привёл спутниковые снимк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вагонов, пересекавших границу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18-19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анее США заявляли, что Север поставил боеприпасы частной российской компании «Вагнера»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в Украине.

Мобиль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К на самом низком уровне за 48 лет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30 январ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сменили 6 млн 152 тыс. жителей РК. Это на 14,7% меньше, чем в 2021 году. Нынешний показатель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низким с 1974 года.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мобиль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окращается в связи с процессом старения общества, а также снижением потребности в смене жилья в условиях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связи. Кроме того, влияние оказал спад активности на рынке недвижимости на фон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и и резкого роста процентных ставок. Коэффициент мобильности – число переселяющихся в расчёте на 100 человек населения - составил 12, что на 2,1% мен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Чистый отток населения из Сеула состави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35 тысяч человек, а из второго по величине города страны Пусана – 14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селени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илегающей к Сеулу, увеличилось на 4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а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 на 14 тысяч человек.

(RKI)

СМИ: в Южную Корею из России перебежали 9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местный источник сообщили о прибытии в страну девя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включая двух военных, которые до этого находи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Официальные ведом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отказались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ибытии в страну перебежчиков из КНДР со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о «Ёнхап», которое цитирует слова профессора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ан Дон Вана. Эксперт, по словам издания, через свои каналы хорошо осведомлен, к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роходит специальные курсы адаптации,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уют в рамках госструктур РК — там прибывших в Южную Корею бывших граждан КНДР знакомят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жизни и быта в новом для них обществ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курсов и бесед с контрразведкой перебежчики уже сами должны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но им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оказывает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Как утверждает профессор Кан,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Южную Корею прибыла группа из девяти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ранее находились в России в качестве направленных из КНДР рабочих, но застряли в РФ из-за введенной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трог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Напомним, что Пхеньян вот уже почти три года не принимает даже своих граждан, опасаяс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Все перебежчики — мужчи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60 лет, двое из них — моложе 30, до направления в РФ служили в армии КНДР. Есть и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о работавшие в РФ плотники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40 лет. Эксперт добавил, что перебежчики изначально не знали друг друга, не работали вместе, а находились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Они собрались вместе лишь в процессе приезда в Южную Корею.

Профессор отметил, что перебежчики стали сильно беспокоиться о своей судьбе после начала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и из-за появившихся заявлений о том,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могут быть направлены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объектов в Донбасс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журналисты попытались получить разъяснения по поводу поступившей информации у местны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но те отказались от комментариев.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под эгидой которого находятся курсы адаптации для перебежчиков, сослались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беспечения защиты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а в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е Южной Кореи, сотрудники которой проводят опросы перебежчиков,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никогда не дают комментариев по данным вопросам».

В этой связи как-то еще проверить информацию сложно, но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перебежчики, если о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и, в несколько групп добрались до посольства или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и, где и заявили о намерении перебраться в РК. Так как, согласно законам РК, все северокорейцы считаются формально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гражданами, то дипломаты Юга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не могут им отказать. Вероятно, что перебежчиков собрали в одну группу, а затем отправили из России в Южную Корею. Учитывая, что прямых авиарейсов из РФ в РК сейчас нет, то это можно было сделать либо с пересадкой в третьей стране, либо паромом, который раз в неделю курсирует между Владивостоком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ортом Тонхэ. Российские власти же, как правило, не желают ввязываться в подобные ситуации, которые достаточно деликатны, и стараются решить всё без излишней огласки и обычно не препятствуют северянам ехать в РК, если те сами этого захотели.

Отметим, что ранее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со ссылкой на анонимные источники сообщала о «масовых побегах рабочих КНДР, которые боятся ехать на работу в Донбасс, где идет вооруженный конфликт». По данным западных источников,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в КНДР противокоронавирусных мер и полн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за границей застряли 1000–2000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включая бывших рабочих.

Олег Кирьянов (NEWS.RU)

У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романов миллионы зарубежных поклонников

Сеул, 30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Серия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романов Ли Ен До «Птица, которая пьёт слезы» установила новый рекорд по экспорт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ниг за рубеж, сообщил ее издатель.

Серия из четырех частей недавно была продана европейскому издателю примерно за 300 миллионов вон (235 997 долларов) в качестве авансового роялти за право ее публикации, сообщил издатель Minumsa, не указав европейского издателя.

«Авансовый роялти» — это роялти, выплачиваемое писателям заранее при подписании издательского контракта. 300 миллионов вон — э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сумма за любую южнокорейскую книгу, экспортируемую в одну страну.

Предыдущий рекорд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когда эссе Ким Су Хена «Комфортно, не слишком стараясь» было экспортировано в Японию на сумму около 200 миллио-

нов вон в 2020 году.

По словам издателя, Ли уже получил более 6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авансового роялти за права на публикацию книги за рубежом от издателей в 12 странах, включая США, Великобританию, Германию, Польшу, Италию, Нидерланды и Украину.

Переводы книги уже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России и на Тайване, а ее английский перевод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 издательством HarperCollins Publishers, одним из ведущих англоязычных издательств в мире.

Первые опубликованная в Южной Корее ассоциированной компанией Minumsa в 2003 году, «Птица, которая пьёт слезы» изображает вселенную с преобладающими элементами корейской фэнтези, такими как «гоблин», корейская борьба «ссирым», народная игра «ютнори» и система подогрева пола «ондол».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о продано более 600 000 экземпляров романа.

90%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компаний РК нанимают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90,6%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компаний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нанимать иностранную рабочую силу из-за нехватки сотрудников из числа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в период с 9 по 25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реди тысяч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Нынешний показатель на 14,9% выше, чем в 2021 году. Как оказалось, нанима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компан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учитывают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физические данные и наличие опыта работы. В первые три месяц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54% уровн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Однако впоследствии она превышает 90%.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зарплата 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авляет 2.134 доллара. Это 93,9% показател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трудников при равных условиях труда. Главы половины компаний отмечают сохранение нехватк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несмотря на увелич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вот на наем иностранцев. 81%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увеличить допустимые сроки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KBS World

Фильм Хон Сан Су «В воде» будет показан на 73-м Берлин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Хон Сан Су «В воде» будет показан на 73-м Берлин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разделе Encounters,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ляет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е работы. Фильмы Хон Сан Су ранее уж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этом фестивале. Его картина «Фильм писательницы» получи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Гран-при жюри «Серебряный медведь». В 2020 году фильм Хон Сан Су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убежала» был удостоен приза «Серебряный медведь»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а в 2021 году фильм «Вступление» получил «Серебряного медведя» за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Берли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крупнейших кинофестивалей мира наряду с Каннским и Венецианским. В этом году он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16 по 26 февраля.

KBS World

[KBS 특파원 리포트]

조선인들은 왜 сахалин에서 지명수배되었나

(3편의 계속)

비단 사도광산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인을 향한 멸시와 차별, 학대는 모든 강제동원 현장에서 '매뉴얼화' 돼 있었습니다.

일본광산협회가 만든 '조선인노무자에 관한 조사보고'(1940)에서 그 실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선 노동쟁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
- 지능 이해의 정도가 상상 이상으로 낮아 의사소통이 어려워
- 모집 현지(조선)의 군면 관계자가 갱내 작업 내 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노동조건에 다소 오해가 있어
- 불량분자의 선동에 응하는 반도인 특유의 교활성

과 부화뇌동성

강제노동에 따른 급여 명목의 돈이 나오긴 했지만, 그 또한 조선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지급할 때는 용처를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한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다음 대목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량노무

자에 관한 취급'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인식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고삐'를 느슨하게 하지 않는 관리를 필요로 한다.

강제동원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 씨는 조선인들을 '소나 말'처럼 다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선인은 소나 말처럼 간주해 관리한다는 것...

'고삐를 느슨하게 하지

않는 관리'라는 표현에 조선인을 어떻게 봤는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나

이 같은 자료들이 이제 와서 새롭게 드러나는 데서 알 수 있듯,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아직 베일에 가려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도광산처럼 조사 자체가 안된 곳들도 있습니다. 사도광산에 어떤 사람들이 동원됐는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이름조차도 고작 담배를 나눠주기 위해 만들었던 '연초 배급 명부'에 의존한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생존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2월 1일까지 사도광산 세계유산 후보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은 또 빠질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전반기업들은 공식 명부 등 관련 기록들을 '은폐'한 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강제동원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출처:KBS NEWS)

С 1 февра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ует запись детей в загородные лагеря на 2023 год

Юных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мут «Чайка», «Лесное озеро», «Юбилейный» и «Восток». Всего же,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грядущая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охватит свыше 58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опросы организации летнего отдыха обсуждались на заседании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и контролирующих органов.

Кроме загородных лагере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более 300 площадок. Наша задача - сделать лето комфортным для ребят. Поэтому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как и прежде, возьмут на себя большую часть расходов на отдых и оздоровление детей. 85 процентов стоимости путевок родителям компенсируют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Дети из семей, оказавш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будут отдыхать бесплатно,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Заявления от родителей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утевок в загородные лагеря принимаются только в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е с помощью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системы «Е-услуги. Образование»: <https://detsad.admsakhalin.ru/>.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ело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обновлению содержания профильных смен загородных лагер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и были посвящены темам: «Большая перемена», «Шахматная школа», «Профильные техноотряды», «Орлята России». Тепер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им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2022 года охватила 59 тысяч юны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90 процентов детей из семей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386 мест отдыха.

50 человек отметили новоселье в отдаленном сахалинском селе

Ключи от комфортабельных квартир с придомовыми участками вручили жителям села Вал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Четыре современных дома возвели на улице Школьной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В каждом доме - по 4 квартиры. Всего в них переедут 16 семей - это 5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ранее прожива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го совхоза «Оленевод». Квартиры сданы «под ключ». В них выполнили ремонт, установили сантехнику, кухонные плиты, газовые колонки. Также в домах установлено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газовое отопление.

В числе новоселов - Арина Степанова, которая жила в старом доме с 1987 года. Переезда в квартиру сахалинка ждала более 20 лет.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моя новая квартира. Такая теплая, светлая! Новая плита, горячая вода есть. Здесь даже полы теплые. Очень рада! Никогда не хотела переезжать из своего родного села - за столько лет очень к нему привыкла, никогда его ни на что не променяю,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островитянка. - В прошлом доме всегда была только холодная вода. Окна закрывали пленкой, потому их продувало насквозь. Крыша худая, завалинки рассыпались в труху уже.

Поздравил новоселов мэр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ергей Камелин.

- Знаю, что многие хотели остаться дальше проживать в своём родном селе, и мы учли это желание в своей работе. Застройщик постарался и возвел эти уютные, теплые, а главное безопасные дома для вас.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новоселов, - обратился к жителям глава района. - С каждым годом мы наращиваем темпы по расселению жителей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Сейчас в Ногликах строится пятиэтажный дом на 46 квартир по улице Космонавтов,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ке улиц Первомайской и Релина начн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двух домов на 65 и 90 квартир. Новоселье во всех этих домах отметят жильцы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Работа по расселению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Напомним, за 3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квартирный вопрос решился для 14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которые ранее проживали в аварийном фонде.

- Сейчас расселяются аварийные дома, признанные таковыми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Только за прошлую неделю в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переехало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Достижени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оценивают на самых высоких уровнях. Т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 нам поступила федер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в размере 1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Область вводит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больше одного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на жителя региона в год. Четверть построенного жилья выкупается под расселение людей из аварийных квартир,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Всего за весь период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с 2021 по 2026 годы,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елить почти 72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улучшат более 32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ень рождения Чехова отмет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масштабной конференцией

«XXVI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и XXV Региональная юношеск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Чехов и Сахалин», приуроченные ко дню рождения великого писателя, состояли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клады подготовили более 60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мало-Ненец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Чуваш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а и Москвы. Это самое большое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за всю историю конференций.

-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 значимое событие в жизн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она собирает на Сахалине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творчества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Чехова. Особенно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в зале в том числе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Это значит, что у конференции не только богатые традиции, но и большое будущее,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Яркий пример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ёжи - участницы конкурса «Чеховиана» Анастасия Василькова и Кристина Мирошникова. В 2022 году девушки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ежегод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в поддоминации «Читая Чехова». Во время открытия конференции они получили заслуженные награды из рук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региона Нонны Лаврик.

-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внимание к конференции с годами только растёт. Причём как среди сахалинцев, так и жителей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Наш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ят что-то новое, им это интересно. И наша задача этот интерес поддерживать,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директор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о ключевых событиях в жизни учреждения и поделилась планами создания единой научной концепции экспозиционно-выставочной площади музея.

По словам Евгении Фирсовой, большая часть музейных коллекций - это дары жителей. Вот и во время конференции музей книги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уник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тисков и вырезок разных авторов об Александре Пушкине. Подарок преподнёс коллекционер Василий Грудев.

После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открытия и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участники продолжили работу по секциям. На площадке музея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результатами своего труда поделились филологи, педагоги, краеведы и работники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Например, участники и гости конференции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работы над учебным пособием «Историческое краевед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завязаны на Чехове. Кажется, что тема узкая. Но мне нравится, что организаторы стараются расширить её за счёт исторического краеведения.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мне хотелось рассказать о том, как велась работа над нашим учебным пособием и какие трудности при этом возникали. А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ть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создать этот

учебник, - рассказала один из авторов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я, заведующая научно-редакционным отдел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лия Дин.

Ю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работы на площадк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А. П. Чехова. Доклады о творчестве классика и его поездке на Сахалин подготовили ребят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 Для меня гордость жить на острове, где ступала нога столь великого писателя, драматурга. В своём докладе мы хотели раскрыть, что означает Антон Павлович Чехов для Сахалина. Приехать сюда с Москвы в то время было непосильным трудом, - рассказал сту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механиза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адим Алымов.

Напомним, региональ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проходит с 1998 года. Это значим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науч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является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ой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 2022 года в один день с «Чеховскими чтениями» проходит Региональная юношеск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Чехов и Сахалин». Ее целью является приобщение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к чеховскому наследию и истории родного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развитие у молодёж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ртнёром выступ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атральный центр имени А. П. Чехо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охранение лесов выделят почти 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редст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ят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охранение лесов» нац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позволит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по обновлению автопарка лесопожар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леса.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озвучили на окружном совещании в Хабаровске,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вана Советникова.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Роман Остапенко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рассказал об итогах прошлогодней работы, а также обозначил ближайшие планы.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охранение лесов» в 2022 году область приобрела лесопожарную технику на общую сумму 7,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лощадь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оставила более 3,3 тысячи гектаров. При этом отношение площади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лесоразведения к площади вырубленных и погибших лесных насаждений - почти 180 процентов.

- На реализаци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ъем средств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2022 году составил 34,8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2023 году сумма увеличится и составит 4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эти деньги мы продолжим обновлять автопарк лесопожар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площади 3020 гектаров, - отметил Роман Остапенко.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и о достиже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боте на отдельных этапах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К пример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дание по рубке ухода в молодняках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еревыполнил на 7 процентов. Это важный этап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без которого все ранее провед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лишены смысла.

Кроме тог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делился опытом подбора кадров в лесное хозяйство - вакансии в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учреждения размещаются на всех современных платформах по подбору персонала, каждый год будущ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щут на «Ярмарках вакансий» в Примор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академии. Агитируют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которые выбирают предмет «Биология» для сдачи ЕГЭ,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лесным хозяйством остров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동포를 위한 행복나눔콘서트 '눈길'

27일 오후 7시 충북문화재단 상상의 터 '희망' 주제로 시낭송 등 공연

[충북일보] 충북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공연이 열린다.

충북도 내 영구 정착 사할린 동포를 위한 '행복나눔콘서트'가 27일 오후 7시 충북문화재단 1층 상상의 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는 도내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 가운데 암투병을 하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하기 위해 콘서트를 마련한 단체는 '충북맨발학교'다.

충북 맨발학교는 전국 맨발걷기 학교의 충북 지부로, 흙바닥을 직접 맨발로 걸으며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이 모인 비영리 단체다.

2018년 충북지부를 창단한 손하운 충북 맨발학교 교장과 교사, 의사, 간호사, 정치인 등 각 계각층의 사람들로 이뤄진 10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행복나눔 콘서트는 손 교장이 도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듣게 되면서 기획이 시작됐다고 한다.

손 교장은 "2008년 고국으로 돌아온 사할린 1세대들과 그의 자녀들 이야기를 도내 사회복지사를 통해 듣게 됐다"며 "이들은 대부분 혼자이거나 부부로 가족들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80대 이상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다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포들의 삶에 대한 조명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손 교장에 따르면 도내에 영구정착해 살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은 80~81명으로 음성, 제천, 오송에 거주하고 있다. 행복나눔 콘서트는 충북 맨발학교 행복나눔위원회의 재능기부로 이뤄진 다.

손 교장은 30년간 음악교사로 교직에 재직했다. 자녀들도 재능을 물려받아 '음악가족'으로의 장점을 심분 발휘하고 있다.

대중음악을 하고 있는 아들이 콘서트 기획을 담당하고, 바이올린을 전공한 딸과 성악을 하는 사위는 무대 출연진 섭외 지원에 나섰다. 올해 2023 행복나눔 콘서트는 '희망'을 주제로 한다. 충북 맨발학교와 산유화 동아리, 앙상블 '쿨카'가 후원해 공동으로 진행한다.

공연은 시낭송과 사할린 동포 6명의 고향의 노래 무대, 하모니카 앙상블, 성악무대, 향피리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로 마련됐다.

공연장에 직접 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충북 맨발학교는 매 콘서트로 모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9년 4명, 2022년 2명의 어려움에 처한 사할린 동포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행복나눔 콘서트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사할린동포 중 암투병을 하고 있는 2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손 교장은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안락한 삶은 개인적인 힘이 아닌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라며 "가진 부에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사회에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충북일보)

어느새 이웃이 된 다문화인들, 다문화 이주민들의 생활문화를 기록하다

국립민속박물관 지역별 다문화 보고서 "우리 안의 다문화" 발간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은 2022년 권역별 생활문화 전국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속조사 사업의 결과물인 "우리 안의 다문화"(총 3권)를 발간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22년 권역별 생활문화 전국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속조사 사업의 결과물인 "우리 안의 다문화"(총 3권)를 발간했다. [이미지 국립민속박물관]

이 보고서는

서울·경기권, 강원권, 경상권의 다문화공간을 조망하고 이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기록하였다. 집필자는 성공회대학교 이슬람문화연구소 이희수 소장,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주화 이맘,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이수정 책임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정해진 학예연구원, 박수환 학예연구원, 강원대학교 김형준, 권혁희 교수, 부경대학교 노용석 교수,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이정화 연구원, 현민 연구원.

"우리 안의 다문화"라 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리 깊숙이 스며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오래되고 낯선 이웃을 이제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소망하는 바를 담았다.

《서울·경기 무슬림들의 생활문화》에서는 한국 무슬림의 역사와 이슬람 거리의 형성, 국내 거주무슬림의 사회적 관계망, 무슬림들의 경제생활과 할랄 산업, 식생활 등을 다루었다. 《춘천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문화》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생활문화와 모스크, 할랄 음식점, 쇼핑 공간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경남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의 생활문화》에서는 러시아어권이주민들의 생활사와 이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을 조망했다.

"2022년 초 춘천에 등장한 모스크는 이 도시가 다문화적 환경 속에 위치해 있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단독 건물이 아닌 건물 3층을 임대하여 시작했음에도 무슬림 유학생을 중심으로 모스크가 설립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종교적 삶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시사했다.

이곳에서 이들은 하루 5차례의 예배와 금요 예배를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모임을 부정기적으로 개최했다. 금요 예배에는 보통 50여명이 참석하는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과 같은 서남아 출신,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출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중심이 된 동남아 출신 그리고 중동 출신까지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이 함께 모였다. 춘천 모스크의 공식적 출범은 모스크 간판을 걸지 않았다는 비공식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즉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공식적 공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공식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도록 만든 것이다."

《부산·경남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의 생활문화》는 부산·경남지역의 해외이주민 공동체의 현황을 파악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부산·경남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러시

아어권 이주민의 이주역사와 생활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흔히 '러시아 거리'라고 불리는 부산역 앞의 텍사스촌과 부산·경남지역의 주요 공업단지인 김해시와 양산시 등지의 이주 노동자들과 이들의 문화 적응전략을 조사하였다.

"공식적으로 러시아 보따리상들의 발길이 시작된 것은 1990년 9월, 보스토치니에서 온 알렉산드르 트바르도브스키호의 부산 입항이었다. 그리고 이후 1991년경 블라디보스톡에서 들어오는 상선관광선은 두 대였으며, 사할린에서 오는 배가 한 척, 그리고 나훔 카Нахо́дка44에서 입항하는 배 한 척이 거의 매일 부산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들은 입항 후 텍사스촌을 도매상 거리로 변모시켰으며, 자신들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었다.

러시아 보따리상의 많은 수는 부산에 입항할 때 '선원'의 자격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선원 여권의 발급이 쉽고 비자가 필요 없으며 일반 관광객보다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보따리상들이 처음 부산에 들어올 초기에는 화물선이나 어선에서 입국 절차를 밟기 전에 선상에서 돈 쓰는 법과 물건 사는 법 등을 교육받았고, 자본주의 돈의 개념이 없었던 이들은 숙박료를 아끼기 위해 밤에는 선박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들의 일부는 입항 후 월 40여만 원을 주고 여관에서 체류하기도 했고, 혹은 월세방을 얻어 텍사스촌 인근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러시아 보따리상들의 텍사스촌 방문이 잦아지다보니, 일부 러시아인들은 스스로 텍사스촌을 '러시안촌'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 3권을 전국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전자책은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학술정보/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이어서 2차 사업으로는 충청, 전라, 제주권의 다문화 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역시 3권의 책이 발간 예정이며 이로써 총 6권으로 다문화 사업 보고서가 완성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12년 《왕조용·김미라 가족의 살림살이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특구 조사》 등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 연구조사에 주목해 왔다. 전시 분야에서는 2012년 <내 이름은 마포포 그리고 김하나>라는 제목으로 다문화 가정을 다루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2010년도부터 <다문화 꾸러미뽀글> 등 10개국을 제작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K스피릿)

2월 3~5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창경궁 풍기대에 대형 보름달 설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지름 3m의 대형 모형 보름달을 띄우는 '궁궐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운영한다.

창경궁관리소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궁궐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는 밤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보름달의 모습을 가깝게 만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대형 보름달이 설치될 풍기대는 창경궁

집복헌 뒤편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창경궁 집복헌 일대에서 궁궐 전각과 대형 보름달을 배경으로 가족, 연인과 사진 찍으며 대보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창경궁 야간개방에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 누리집(cgg.cha.go.kr)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행사가 취소된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

세종학당재단 웹드라마 '거실에 아이돌이 산다' 웨이브에서 본다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해 지난해 유튜브서 10분 분량 10편 공개국내의 폭넓은 시청 위해 OTT '웨이브' 통해 92분 분량 편집본 공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혜영, 재단)은 창립 10주년 기념 웹드라마 '거실에 아이돌이 산다'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 공개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재단 공식 유튜브(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를 통해 방영된 '거실에 아이돌이 산다'(제작 ㈜원더월 프렌즈, 감독 서경국)는

세종학당의 우수학생 '조이'와 한류 아이돌 스타인 펜타곤의 '여원'이 우연히 한 집에 동거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청춘 멜로 드라마다.

현재 유튜브에는 약 10분 분량으로 제작된 10편의 웹드라마 동영상 모두 공개돼 있으며, 2023년 1월 말 현재 당 평균 약 27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재단은 웹드라마를 국내외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7일부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웨이브'에 92분 분량의 1편으로 편집해 공개했다.

오는 2월 첫째 주부터는 재단 공식 SNS를 통해 웹드라마 대부분집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시청 인증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영 재단 이사장은 "이번 웹드라마의 '웨이브' 공개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웹드라마를 즐기면서 교실 밖에서도 재미있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Еще одна новинка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 участие компании,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ейся на доставке блюд, поэтому попробовать интересные блюда можно будет и не выходя из дом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естиваля выступают сахалинский ТИЦ, министерство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ая ассоциация кулинаров и рестораторов «Сакура».

사할린 남성, 존재하지 않은 공연 티켓에 120만 루블리 지불

5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전화사기꾼의 말을 믿어 4백만 루블리 이상을 잃었다. 현재 사할린 주민들에게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갈취한 범주자들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유즈노사할린스크 38세의 주민은 앱을 통한 여성과 친구로 지내게 되어 이후 SNS를 통해 교제를 했다. 상대 여성이 만나자는 제의를 하며 유명 코메디 공연에 가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예능인들이 등장하는 온라인 공연 티켓 구매 사이트를 받아 사이트로 들어가 지시대로 진행하여 3600루블리를 결제했다. 이후 은행앱을 통해 사할린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 이체에 대한 통지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의 계좌에서 120만 4천 664루블이 사라졌다.

둘째 52세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인 피해자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증권과 암호화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로 돈벌이 제의를 받았다.

이 남성은 동의하고 상대가 지시한 두 개의 앱을 설치하고 암호화화폐를 사기 위한 돈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이 남성의 계좌에서 145만 루블리가 전달됐으나 그는 그 어떤 이익도 얻지 못했다.

셋째 18세의 사할린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은 그에 게 익명의 사람이 메시지를 통해 전화하여 은행 직원이라 사

칭하며 피해자의 이름으로 자동차 구매 대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가짜 은행원은 금융기관에 청년의 개인 계정을 사기꾼들이 해킹하였으니 계좌에 든 모든 금액을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대화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서가 메신저로 들어와서 피해 남성은 사기꾼을 따라 진행하며 신청서를 확인했다. 이후 피해 남성은 사기꾼이 지시한 앱을 설치하고 지시한 금액을 은행에서 받아 지시한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사기꾼은 연락을 끊어버리고 피해 남성은 40만2천 루블리를 잃었다.

넷째는 '은행 직원'이라 사칭한 자가 62세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을 속인 사건으로 피해 남성에게 누군가 피해자의 은행 카드로 예금액을 인출하고 있다고 얘기를 꾸며댔다. 피해자는 예금된 돈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 '은행 직원'에게 이체시켰다. 이렇게 하여 그는 59만8,100루블리를 잃었다.

다섯째 피해자는 50세의 티몹스코예 지역 주민으로 그는 인터넷상에서 스노모빌 판매에 대한 광고를 보았다. 판매자와 세부 거래를 논의하고 판매자에게 45만 3천 루블리를 지불했다. 그러나 이후 이 차량 광고도 중단되고, 그와 연락도 끊겼다.

이 모든 사건들을 금융사기 범죄 사실로 접수하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경찰이 보이스피싱범들을 찾고 있다.

Мужчина купил сахалинке несуществующие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 за 1,2 млн рублей

Пятеро островитян потеряли более 4 млн рублей, поверив злоумышленникам. Стражи порядка ищут преступников, которые нажились на наивности сахалинцев.

Одним из потерпевших признали 38-летнего жите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девушкой в приложении для знакомств, а потом продолжил общаться с ней в мессенджере. Собеседница предложила встретиться, но заявила о том, что хочет сходить на концерт популярного комика. Мужчина получил от нее ссылку для онлайн-покупки билетов на выступление артиста,

перешел по ней, ввел данные карты и подтвердил списание 3 600 рублей. Но после этого сахалинцу начали приходить уведомления из мобильного банка о переводах денег с его счета. Суммарно у мужчины пропало 1 204 664 рубля.

Другим пострадавшим стал 52-летний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Ему позвонили неизвестные и предложили заработать, торгуя ценными бумагами и криптовалютой на бирже. Островитянин согласился, установил два приложения по указанию собеседников и начал переводить деньги для покупки электронных денег. С 11 по 25 января у мужчины списали 1, 45 млн рублей, но никакой прибыли он так и не получил.

Третье заявление полицейские приняли у 18-летнего жителя Сахалина. Неизвестный позвонил ему через мессенджер, представился сотрудником банка и сообщил, что от имени островитянина поступила заявка на автокредит. Также собеседник упомянул, что учетную запись юноши в финанс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зломали мошенники, поэтому нужно перевести все деньги с его счета на безопасный аккаунт. Во время разговора островитянину пришла в этом же мессенджере заявка на оформление кредита. Согласно своим действиям с мошенником, парень подтвердил ее. Потом потерпевший установил рекомендуемое преступником приложение и перевел в нем полученные из банка деньги на указанный счет. Затем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перестали выходить на связь. Сахалинец лишился 402 тысяч рублей.

«Сотрудник банка» обманул и 62-летнего южно-сахалинца. Преступник рассказал мужчине легенду о том, что кто-то пытается снять все накопления с его карты. Чтобы защитить сбережения, пожилой островитянин перевел все деньги мошенник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тдав злоумышленнику 598 100 рублей.

Пятым пострадавшим стал 50-летний житель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н увидел в интернете объявление о продаже снегохода. Обговорив с продавцом детали сделки, сахалинец перевел ему 453 тысячи рублей. После этого автор объявления перестал выходить на связь.

По всем фактам хищений полиция возбудила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ищут злоумышленников.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도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8-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